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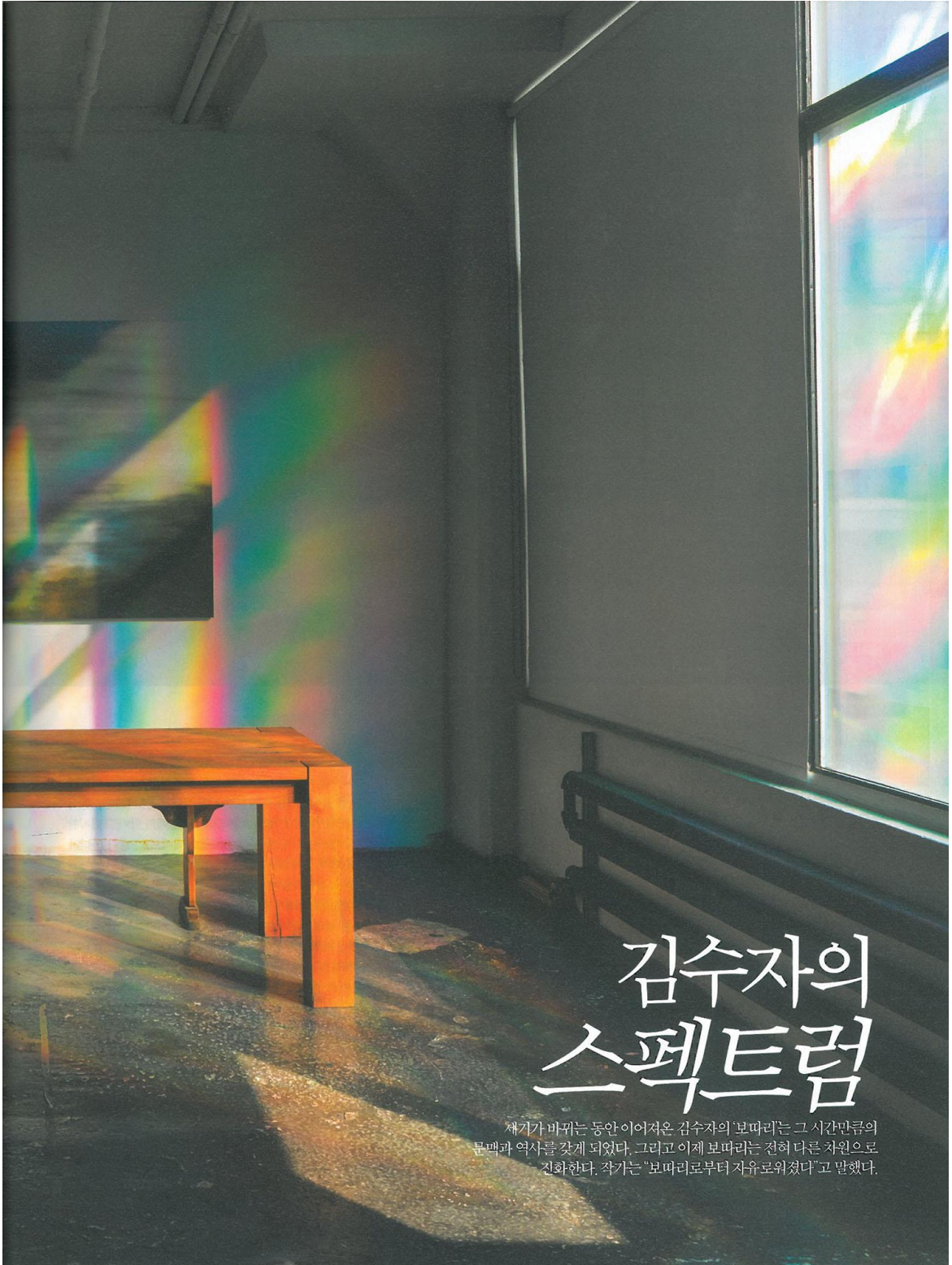
김수자의 스펙트럼

October, 2017 | 김지선 에디터

page 1 of 8



아름다운 빛과 색으로 물들어 있는
김수자의 뉴욕 스튜디오.



김수자의 스펙트럼

재기가 바뀌는 동안 이어져온 김수자의 보따리는 그 시간만큼의 문맥과 역사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보따리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진화한다. 작가는 "보따리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말했다.



김수자 작가의 포र्ट레이트.

아름다운 빛과 색으로 물들어 있는 스튜디오가 그 자체로 하나의 작품처럼 느껴져요. 이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나요? 이곳은 작품을 제작하기보다는 구상하는 곳이에요. 오전 시간에는 주로 혼자 있어요. 될 수 있는 한 말도 안 하고 사람도 안 만나려고 해요. 조용히 일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정오쯤 되면 밖으로 나가는 거죠. 아침부터 서둘러서 움직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오랫동안 뉴욕에서 지내셨는데 뉴욕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거의 20년이 되어가는데, 실제로 산 시간은 아마 절반도 안 될 거예요. 전시를 하는 도시로 자주 떠나다 보니까 뉴욕에 있는 기간은 일 년 중 4-5개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외에는 떠돌아다니는 거죠. 뉴욕이라는 도시는 사실 굉장히 터프하고, 살아남기 어려운 도시예요. 그래서 여전히 뉴욕에서 켈런지를 느껴요. 다른 도시에 있다가 뉴욕에 다시 돌아갈 때, 항상 뉴욕의 새로운 얼굴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어떤 언어로 떠오를 때도 있고요. 그만큼 뉴욕이라는 도시가 다양한 면모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여행하고 돌아온 도시의 투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서울에서 뉴욕으로 돌아갈 때와 밀라노에서 뉴욕으로 돌아갈 때 미추치는 뉴욕의 느낌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 관계들이 참 흥미로워요.

지난 (바자)와의 인터뷰에서 인간을 이해하고 물질주의를 경험할수록 자연에 대한 열정이 더욱 강해진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연환경이 있는 곳이 아닌 대도시에 거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도 관계 때문인지 몰라요. 뉴욕은 친구들이 있는 곳이고, 제 주위에는 아티스트보다 글 쓰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과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토론하고 전시에 대한 평가 미술계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은 영감이 돼요. 자연을 그리워하고 필요로 하긴 하지만 사실 저도 수십 년을 대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느새 굉장히 도시형의 인간이 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섬에서 살기도 했지만 지금 시골에 떨어지면 적응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자연이 갖고 있는 순혈의 존재감과 흐름은 작업의 근원이 되고, 제가 세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요.

인파가 몰려 있는 메트로폴리스에서 말 없이 우뚝 서 있는 퍼포먼스를 기록한 작품 '비늘 여인'에서 본 길고 검은 생머리를 상징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만나봐니까 검은 머리와 검정색 의상이 더욱 근사하게 느껴집니다. 나중에 조지아 오키프처럼 '김수자의 옷'을 전시해도 멋질 것 같아요. 그래요? (웃음) 베를린에서 가진 이번 개인전에서도 오랫동안 입었던 검은색 옷을 빨랫줄에 넣어놓은 작품 'Bottari'와 20년 동안 간직해온 머리카락을 모은 작품 'Topology of Time'을 전시했어요. 마음에 들고 편한 옷들은 다 떨어질 때까지 계속 입고 다녀요. 검정색 옷을 입으면 나는 '숨겨져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사람들은 그게 더 눈에 띈다고 말해요. 사실 저는 눈에 띄는 것보다는 흡수하는 색깔로서의 감정을 좋아해요. 그동안 색이 강한 우리나라의 전통이 불보로 보마리 작업들을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감정을 선호하게 된 것 같아요.

이번 베를린 전시에서 케베니히(Kewenig) 갤러리의 창립자 마하엘 O. 케베니히를 추모하는 의미로 둔 흰색 보따리도 오랫동안 전장에 담았습니다. 케



작품과 완벽한 합일을 이루는 공간.

베니히와 나는 오랜 동료이자 친구였어요. 그가 실제 사용하던 침대 시트로 생긴 애가던 물건들을 보따리 형태로 썼죠.

그동안 만들어온 무수히 많은 보따리의 히스토리를 듣고 싶습니다. 작가에게 보따리를 쓰는 일의 의미가 크게 전환된 몇 번의 시기가 있다면 언제인가요? 맨 처음 저의 삶 속에서 발견한 보따리는 사실 굉장히 기능적인 보따리였어요. 붉은색 보따리였는데, 내가 싸놓은 것이지만 작업으로서의 의미라기보다는 실제로 나의 옷들을 보관하는 보따리였거든요. 1991년에 P.S.1에서 처음으로 대중에게 선보인 보따리는 3차원적 조각, 설치, 퍼포먼스로서 아주 복합적인 기능과 의미와 형식을 가지고 있는 작업이었어요. 이때 한 발견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다음에 서울로 돌아오면서 '보따리는 미학적이고 형식적인 피그먼트(Pigment)일 뿐 아니라 삶의 어떤 리얼리티를 함유하는 것'라는 인식을 더 강하게 하게 됐어요. 아마도 한국에서 살아가는 여성의 삶의 조건이나 사회적인 제약을 강하게 느끼게 되면서 이러한 인식이 작품에 담기게 된 것 같아요. 전통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여성의 노동, 책임감, 한계를 담은, 개인의 삶을 반영하는 보따리를 발견하게 된 거죠. 여기에 저의 노마디즘이나 개인적인 히스토리가 개입하기도 했죠. 베니스에서 작품을 선보이고 클로벌리즘과 함께 흐름을 타면서 보따리는 훨씬 더 다문화적인 콘텍스트를 갖게 됐어요. 작업이 계속되면서 보따리는 시간과 공간을 함축하는 오브제로서 히스토리를 축적하게 됐어요. 보따리를 발견한 후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세기가 바뀌었죠. 그 시간을 통해 진화하고 발전하면서 보따리의 재료는 이제 이별보에 한정되지 않아요. 우주의 알로 알려진 인도 브라만다의

“오랫동안 보따리 작업을 해오면서 보따리의 문맥이 충분히 형성됐다고 봐요. 이제는 재료와 형태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여러 가지 차원을 넘나들어도 되고, 반대로 보따리를 새롭게 만드는 일에 천착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침내 보따리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죠.”

검은 돌에서 영감을 받은 조각 작품도 제작했어요. 그동안 선보인 보따리가 고체화된 조각품이죠. 타인체를 두르고 있는 오방색 띠는 조각을 감싸는 요소이기도 했지만, '싸는 행위'를 '그리는 행위'로 전환시켜준 작업이에요. 이 작업 이후에는 '이제는 어떤 보따리가 되어도 상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보따리 작업을 해오면서 보따리의 문맥이 충분히 형성됐다고 봐요. 이제는 재료와 형태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여러 가지 차원을 넘나들어도 되고, 반대로 보따리를 새롭게 만드는 일에 천착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침내 보따리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죠.

어쩌면 많은 작품들이 모이는 비엔날레야말로 보따리가 놓이기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카셀 도큐멘타 현장 곳곳에서 김수자의 보따리와 마주했는데, 학구적인 태도로 정치적인 발언을 풀어놓는 무수히 많은 작품들을 한데 감싸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실과 바늘의 관계는 삶의 논리를 꿰어주기 때문에, 제

“굉장히 단조롭고 반복적인 허밍과 리듬감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절대적인 고요 속에서 내 나름대로의 음조와 웨이브를 느끼는 것이 평정심이 유지되는 상태죠. 하지만 저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많은 부딪힘과 분노와 부족함을 느껴요. 그런데 작품을 만든다는 것은 평정심이 깨어지는 순간인지도 모르겠어요.”

작품도 다른 작가들의 작품과 함께 놓여 있을 때 어떤 관계를 만드는 것 같아요. 카셀에서도 보따리가 자연스럽게 다른 작가들의 작품과 관계를 맺으며 새로운 콘텍스트를 만들어내는 것이 흥미로웠어요.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어요. 교토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에서 새로운 장소특정적 프로젝트를 선보일 예정이고, 유럽 지역 세 군데에서 동시에 작품을 선보이게 돼요. 지금 이 시점에 많은 곳에서 작품을 ‘부르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은 결국 그동안 문맥화해온 보따리라는 개념이 좀 더 잘 이해되고 다른 작가들의 작품과도 관계를 맺는 시점이 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김수자의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은 요가를 하는 시간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명상과 유사한 경험을 선사하죠. 요가 초보자에게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고 나 자신의 존재감만을 인식하는 명상의 시간이 좀처럼 찾아오지 않는 것처럼, 김수자의 작품을 감상하는 데도 들숨과 날숨 사이를 자유롭고도 깊이 있게 오갈 수 있는 내공이 필요해요. (웃음) 요가를 하고 나면 굉장한 해방감을 느끼지 않아요? 물론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You have to enjoy your pain!” (웃음)

요가를 하는 동안의 신체적 움직임은 담은 ‘몸의 기하학’이라는 작품을 만들기도 하셨는데, 가끔 요가를 통한 명상의 시간을 가지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실천하느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일상 자체가 명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로 명상의 시간을 갖지는 않아요. 명상을 훈련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의도적으로 명상 클래스에도 가지 않고요. 이미 일상의 순간 순간을 명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걸 통해서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상을 명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다고 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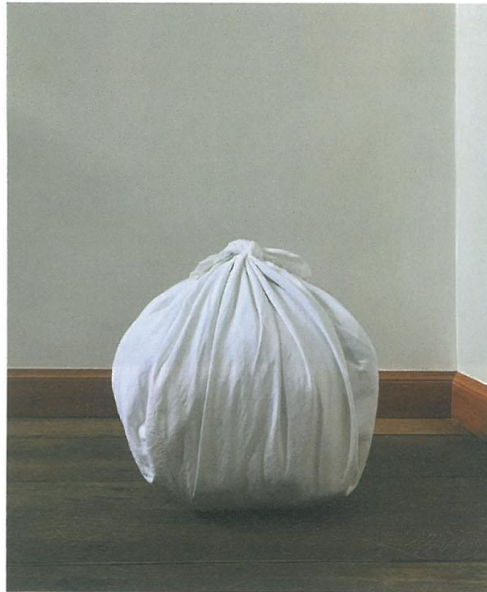
각자의 ‘Way of Looking (보는 방식)’, ‘Way of Being (존재의 방식)’, ‘Perceiving (인지)’를 통해서 명상에 접어드는 것이지요.

“작가가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삶이 예술이고 예술이 삶이다. 예술가란 일상의 예술적인 속성을 드러내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일상에서 예술적인 속성을 발견하는 순간, 작품의 시작점이 되는 순간이 이를테면 어떤 순간인가요?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감각이 거의 다 제거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다.” 사실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일상에서는 소음이 거의 없는 절대적인 고요를 필요로 해서, 작은 노이즈에도 굉장히 예민해해요. 만달라 단가에 나오는 웅얼웅

얼하는 소리와 비슷한, 굉장히 단조롭고 반복적인 허밍과 리듬감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절대적인 고요 속에서 내 나름대로의 음조와 웨이브를 느끼는 것이 평정심이 유지되는 상태죠. 하지만 저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많은 부딪힘과 분노와 부족함을 느껴요. 그런데 작품을 만든다는 것은 평정심이 깨어지는 순간인지도 모르겠어요. 평정심이 깨어진다는 것은 어떤 부딪힘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사물과 사물이 부딪힐 때, 생각과 생각이 부딪힐 때 시작되는 것들이 있어요. 부딪힘이나 어긋남이 없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

으니깐요. 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뭔가가 진행되고 있기에 아무것도 안 해도 심심하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자다가도 꿈속에서 나를 깨우게 하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요즘 많이 하는 생각은 뭔가요? 지금 이 세계는 그야말로 ‘Era of Destruction’, 파괴의 시대예요. 제3차 세계대전의 시작 단계에 있다고 봐도 될 정도라고 생각해요. 유목민처럼 계속 이동하며 세계 곳곳을 다니다 보니까 위험이 확장되고 파괴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상태를 잘 인식하고 그 문제에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생각하려고 해요. 물론 현실 속에서 구체화되고 작업으로 전개되는 데는 한계가 따르기 때문에 생각으로 머물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 한편에서 늘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 자신과 타인을 깨우는 것이 예술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예술가의 역할이나 예술의 존재의 의미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지만, 표현하는 언



케베니히 갤러리의 창립자 미하엘 O. 케베니히의 죽음을 추모하는 의미로 둔 흰색 보따리
“Bottari - In The Memory of Michael Kewenig”, Used bedcover, used clothing, shoes, perfume, and belt from Michael Kewenig, 48x57 (dia.)cm, 2017. Courtesy of Kewenig Gallery, Berlin and Kimsocja Studio,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어가 달라질지언정 예술이 해야 할 역할에는 변함이 없다고 봐요.

김수자의 보따리는 상실과 상처를 감싸안는 역할을 해왔어요. 작품을 보는 사람은 말로 잘 설명할 수 없는 위로를 받는데, 작업 과정이 본인에게도 어떤 위안이 되나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결국 한 작품 한 작품이 무언가를 ‘떠나 보내는’ 작업이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짐을 떠나 보내는 작업이기도 했고,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나 직면해야 하는 의문들, 또는 고통과 기쁨까지도 내부의 여정을 통해서 소화하고 극복하고 초월하는 하나의 긴 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작가라든가 아마 다들 비슷할 거예요. 작업은 그런 초월의 과정을 겪으면서 무언가를 떠나 보내는 일이지요.

인류를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은 없었나요? 인간의 작은 마음속에도 무수히 많은 폭력과 타인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악의가 숨어 있잖아요. 평등이라는 가치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고, 휴머니티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성이 상실된 모습에 크게 실망하죠. 개인적으로도 참 쉽게 극복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 또한 어느 순간 포용하고, 실망감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 에디터/ 김진선



카셀 도큐멘타에서 조셉 코수스의 작품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김수자의 보머리 'Botani', Used Korean bedcover and used clothing, 143×149cm, 2011



베를린에서 열린 개인전 (Kimssooja - Geometry of Breath)에서 선보인 작품
'To Breathe: Mandala', single channel mixed video sound installation, Jukebox speaker with artist's voice performance The Weaving Factory,
2004, 9:14 loop, 2010, Photo by Stefan Müller, Courtesy of Keweng Gallery, Berlin and Kimssooja Studio,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베니스 포르투니에서 선보인 관객 참여형 작품
'Archive of Mind', Participatory site specific installation consisting of clay spheres, 19m elliptical wooden table, with sound
performance Unfolding Sphere, 38 x 78cm, 2016, Installation at Kimssooja - Archive of Mind at MMCA, Seoul, Courtesy of MMCA and
Hyundai Motor Co. and Kimssooja Studio,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프랜시스 & 미러 웬만 (Diffraction through the mirror, The Weaving Factory, voice performance by Francis & Mirror, The Weaving Factory, 2012, Photo by José Luis Muñoz, Courtesy of Museo Nacional Centro de Arte Reina Sofía, Madrid, Kukje Gallery & Kmscoja Studio,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